

제23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개회

제8대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롭게 구성



▲ 강원도의회(의장 박상수)는 제230회 정례회 개회식을 개최했다.

강원도의회(의장 박상수)는 2013년 7월 5일부터 15일간 제23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를 개최하여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과 도청 22개 실국과 교육청의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 상황을 보고 받고 지역현안과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했다. 또한 원태경·김금분 의원 외 16명이 발의한 “강원도 학교 박 청소년 지원조례안”과 이문희·조영기 의원 외 31명이 발의한 “강원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과 도지사 제출 의안 11건, 교육감 제출 의안 6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박상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7월 힘차게 출범한 제8대 후반기 강원도의회가 벌써 개원 1주년을 맞이하였으며 그동안 우리 도의회를 믿고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하고 “정책대안 중심의 일하는 의회를 위해 도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는 물론 각종 의정활동을 통하여 잘하는 시책은 더욱 장려하고 미흡한 시책은 대안

을 제시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자치입법 강화, 의원연구활동 활성화로 의정역량을 강화하여 섬기는 의회를 만들고, 민생 현장중심의 가까운 의회로 거듭나겠다”고 했다.

2012회계연도 도 및 교육청의 결산 규모는 도청 소관이 약 3조 8,379억원이고 도교육청 소관은 약 2조 4,550억원이다. 이와 관련하여 강원도의회에서는 이번 결산을 통해 예산의 적정성과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개선점을 찾아내어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반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강원도의회에서는 지난 5월 16일에 도의원 3명(최돈국 의원, 조영기 의원, 궤도영 의원)과 회계사, 세무사 등 총 9명을 결산감사위원으로 위촉하였고

5월 22~6월 1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특히 7월 16~17일 이틀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임남규 위원장과 김미영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2012회계연도 강원도 및 강원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의했다.

이번에 구성된 제8대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4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며, 강원도지사 및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는 결산 및 예산안을 심의하게 된다.

“제19회 강원도민의 날을 경축드립니다”

제8대 강원도의회 하반기 1주년

강원도민 여러분!
지난 1년간 열심히 하였습니다. 남은 1년도
도민행복과 강원발전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강원도의회
*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2층 200호 ☎033-249-5001

주요내용

- 제230회 정례회 의원발의 제·개정 조례 …2면
- 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 ……3, 4, 5면
- 제9차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개최 …6면
- 제8대 도의회 하반기 개원 1년, 의정성과와 과제 …7, 8면
- 도의회 의회운영·기획행정위 활동 ……9면
- 도의회 사회문화·농림수산위 활동 ……10면
- 도의회 경제건설·교육위 활동 ……11면
- 도의회 예결위 활동 ……12면
- 사진으로는 의정 이모저모 ……13, 14면
- 강원도의회 의원동정 ……15, 16면

제230회 정례회 의원발의 제 · 개정 조례



원태경 의원
사회문화위원회
춘천시 제3선거구



김금분 의원
사회문화위원회
비례대표

강원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원태경의원 대표발의)

사회문화위원회 원태경의원과 김금분부위원장이 공동발의한 「강원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 이 조례는 퇴학 및 미진학 등 학업중단 청소년과 비진학청소년 등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대안교육 등 적절한 교육적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내용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특성에 맞는 교육, 사회, 직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마련 ▲매년 수립하는 청소년 육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을 포함 ▲지원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강원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기능은 「강원도 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강원도청소년위원회에서 대신 할 수 있음.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추진 시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위탁 운영 ▲교육적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음

▲발의자: 원태경, 김금분의원 (2명)

강원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고진국의원 발의)



고진국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 영월군 제1선거구

경제건설위원회 고진국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가 제정됐다. 이 조례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위반행위 등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화물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을 도모하여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됐다.

주요내용으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정함(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위반행위 : 10만원,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위반행위 : 15만원,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행위 : 15만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은 경우 : 20만원) ▲포상금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을 정함. (신고인 계좌로 1개월 이내에 계좌입금, 연 100만원 한도) ▲포상금 신고접수 및 지급 등의 권한을 시군에 위임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시·군의 재원으로 함.

▲발의자: 고진국의원 (1명)

강원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이문희의원 대표발의)



이문희 의원
교육위원회
교육 제2선거구



조영기 의원
교육위원회
양구군 선거구

교육위원회 이문희의원과, 조영기부위원장이 공동발의한 「강원도 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가 제정됐다. 이 조례는 국제결혼의 증가 및 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유입 등으로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다문화가정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언어나 사회적 편견 등으로 소외되고 학교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강원도 내 다문화가정 학생들에 대한 평등한 교육 기회의 부여 및 교육 격차를 해소, 일반 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다문화의 가치를 확산시키고자 제정됐다.

주요내용으로는 ▲다문화교육 진흥 및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 지원 시책 등을 포함하는 다문화교육 진흥 계획을 수립·시행 ▲특별한 교육 지원을 필요로 하는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하여 다문화교육 특별학급을 설치·운영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예비학교, 대안학교, 거점학교 등의 다문화교육 친화적 학교를 지정·운영 ▲다문화에 대한 차별 및 편견 제거를 위하여 일반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이해 교육 실시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효과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사업의 일부를 다문화가정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 ▲강원도교육청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등을 규정 ▲강원도지사와의 협력을 통해 중복적이지 않은 체계적인 다문화교육 관련 사업 추진

▲발의자: 이문희, 조영기의원 (2명)

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

국제관광정보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제230회 정례회 / 1차 본회의 / 2013. 7. 5(금)



김 성 근 의원
사회문화위원회 / 속초시 제1선거구

강원도는 1999년 강원국제관광엑스포를 개최하면서 엑스포 주제관과 타워 등을 건립하였고, 엑스포 개최 이후 강원관광의 지속발전을 도모하고자 국제관광정보센터를 설치하여 강원도 관광안내와 홍보를 위해 운영해 오고 있다. 그러나 국제관광정보센터는 관광객들의 관광정보 문의나 방문 사례가 거의 없어 사실상 그 기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1999년 관광엑스포 시설물 건축이후에 개·보수를 위한 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모든 시설물들이 노후 되었고,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 각종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관

리주체의 변경과 다목적 활용방안 강구, 그리고 주변지역과 연계한 복합적 활용 등 이제는 좀 더 전문적이고 공격적인 마케팅 기법의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EXPO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속초시에 관리운영권을 위임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그렇게 되면 속초시가 지역의 관광 랜드마크로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애정을 갖고 활용방안을 적극 찾을 것이며 관리의 효율성 또한 매우 높아질 것이라 판단된다. 물론 위임관리를 위해서는 EXPO장의 노후된 시설은 도에서 보수를 하여 넘겨 주되 도의 재

정 형편상 연차별로 보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철원의 평화문화광장이나 영월의 탄광문화촌의 예와 같이 관리운영비 등의 지원도 있어야 한다.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소규모 경비는 운영주체인 속초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줄탁동기(● 厥同機)란 말이 있다.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새끼와 어미닭이 안팎에서 서로 쪼아야 한다는 뜻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한 EXPO장이 강원도의 관광 랜드마크로서 재탄생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계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평창비엔날레 강원국제미술관람회 관련

제230회 정례회 / 1차 본회의 / 2013. 7. 5(금)



이 숙 자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 비례대표
강원도와 강원문화재단은 7월 20일

부터 8월 말까지 알펜시아리조트와 동해 양바엑스포전시관에서 '2013 평창비엔날레'를 개최한다고 한다. 행사비는 국비 10억 원과 도비 15억 원 등 25억 원이 소요되지만 준비과정이나 성과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첫째, 국내의 비엔날레는 이미 포화 상태라는 점이다. 오래 전부터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앞다투어 비엔날레를 열어 '비엔날레 피로증후군'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내고 있다. 둘째, 비엔날레의 기본 취지를 풀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강원도의 경우 사무국과 예술감독이 5월 중순에야 꾸려졌다. 홈페이지는 6월에 오픈했다. 과연 국제 비엔날레를 7월에 연다는 것이 합당한지? 셋째, 가장 중요한 절차

상의 하자이다. '강원국제미술전람회' 조직위원회 설립지원조례는 국제미술전람회와 민속축전 개최 운영을 위한 조직위원회 설립과 지원을 위한 조례이다. 그러함에도 현 강원문화재단을 활용하겠다는 편법적 발상은 이 조례를 명백히 위반한 초법적 행태이며, 현재 비엔날레준비팀은 근거가 없는 위법조직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넷째, 이를 주관하는 강원문화재단의 전문성이다. 강원문화재단 이사장과 사무처장 모두 지역 현실을 전혀 모르는 문화계와는 더더구나 거리가 있는 분들이 총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지역정서와 동떨어진 비엔날레라는 점이다. 총감독은 외부에서 모셔졌고, 집행하는 강원문화재단의 집행부도 알펜

시아와 양바엑스포장과의 거리는 염두에 두지도 않은 듯하다. 강원도가 과연 지역현실을 알고 이 같은 기획을 했는지 지역주민들은 거듭 묻고 있다.

동계올림픽 관련 예산으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시점에 한 톨을 쓰더라도 더 정교하고 치밀한 계획과 사업추진이 절실하다. 그럼에도 급조된 K-팝 콘서트, 셀럽마케팅, 비엔날레 등 일회성, 이벤트성 행정만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는가? 과거 백범 김구 선생이 휴전선을 넘으며 남겼던 말씀 "눈 덮인 밤길을 걸을 때 어지러이 걷지 마라! 뒤에 오는 사람들의 이정표가 된다"는 경구를 다시 한번 상기하고자 한다.

최문순 도정에 대한제언

제230회 정례회 / 1차 본회의 / 2013. 7. 5(금)



윤 병 길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 비례대표
지난 도정에서, 8년간 노력해도 유치하지 못했던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하여 전 세계에 강원도의 이름을 드높였고 동계스포츠 메카로 강원도의 기틀을 마련했다. 또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도 공식으로 지정받아 강원도를 환동해권 시대의 희망으로 만들고 있다. 뿐만 아니라 GTI투자박람회에서는 1억 6,000만 달러 이상의 계약 성과를 올림으로써 2014년 UN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 강원도 유치와 더불어 강원도의 높은 역량을 대내외에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역대 지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성과에 반해 지사님의 도정 스타일에 대해 많은 우려를 갖고 있다. 특히 지사님의 강력한 지도력을 바탕으로 혼연일체가 되어서 일해야 할 도의 조직이 시간이 갈수록 이완되고 느슨해지고 있다는 지적

이 나오고 있다. 알면서도 그냥 계시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모습이 지사님의 조직관리 방식인가를 묻고 싶다.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소탈한 행보가 최대 장점으로 뽑히는 최문순 지사지만 도정의 책임자로서 카리스마나 조직장악력의 측면에서는 아쉽다는 평가도 나왔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다. 매번 인사를 단행하고 나면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도 다시금 곰곰이 생각해봐야 될 일이라고 본다. 공무원 사회는 대부분 실적과 연공서열을 두루 감안하면서 승진과 보직이 배정되는 것이 관행이고 몇몇 공무원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인사와 조직 기강 문

제를 바로잡을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최문순 도정의 역량이 훼손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

그동안 중앙부처와 국회를 수시로 방문하시고 다양한 계층의 인사들과 접촉하시면서 강원도 현안을 위해 애쓰셨지만 아직 우리 앞에는 여러 현상과 숙제가 산적해 있다. 더욱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심각해지는 강원도에 대한 각종 홀대 문제가 강원도민들에게 많은 상처를 안겨주고 있기에 이제 우리는 강원도 대선 공약이 당초 약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야 한다. 지사께서는 공약 이행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T/F팀을 잘 점검하여 주시고, 각 부처와 기재부 예산 편성, 국회 통과 때까지 각 단계별로 적절히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원주여고 이전 후 부지활용에 대한 제언

제230회 정례회 / 1차 본회의 / 2013. 7. 5(금)



김 현 의원
교육위원회 / 원주시 제3선거구

원주시 소재 원주여자고등학교가 예정대로라면 이제 7월 중순 이후부

터 혁신도시로의 이전을 시작하게 된다. 원주여고는 1945년 개교 이후 68년여의 기간을 통해 약 2만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원주지역 여성교육의 산실이었다.

원주여고는 원주시의 전형적인 구도심지라 할 수 있는 명륜1동에 소재 하던 학교를 혁신도시로 이전함으로써 낡은 교사를 벗어나 우리 여학생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게 해 주었다. 문제는 새로운 것은 새로워서 좋다지만 남은 시설은 어찌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시설 이전 이후는 단지 공동화로 인한 상권의 붕괴만이 아니고 기존 시설 자체의 사용용도에 골치를 썩고 있는 것이 현실일 것이다.

특히 학교부지와 같이 규모가 클 경우에는 매각에 더욱 어려움을 겪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라 할 것이다. 원주에는 원주여고 바로 이웃에 원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3개의 재개발 지구를 설립하고도 10여 년 동안 시공도 들어가지 못하는 현실을 볼 때 구도심 지역 개발의 어려움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물론 매각을 통해 학교 이전에 따른 비용 일부를 충당하고자 하는 당위성 또한 충분히 동의하지만 원칙적 입장이라 매각을 해야 한다면 매입자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이 동반되지 않고 단순 입찰만을 기대하기에는 많은 우려가 될 수밖에 없다.

결국 매각은 매각대로 늦어지고 대상부지는 방치되고 계속되는 입찰과정에서의 유찰은 소중한 공유재산의

가격을 떨어뜨리고 주변지역은 공동화로 실의에 빠지는 악순환이 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렇듯 현실적으로 학교 부지의 매각이 어렵다면 교육감과 강원도교육청은 대체 활용 방안을 모색하거나 다른 공공기관의 설립 등을 해당지역 지자체와 적극적인 방안모색을 하여 주실 것을 교육감님께 부탁드립니다.

원주시도 원주여고 이전 이후 지역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학교, 외국어 대안학교 등의 설립도 고민해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강원도 교육청은 원주시와의 논의를 통하여 원칙적인 입장의 매각만이 아닌 임대 또는 대체기관 설립 등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강릉연탄공장 관련하여

제230회 정례회 / 1차 본회의 / 2013. 7. 5(금)



김 동 자 의원
농림수산위원회 / 강릉시 제3선거구

얼마 전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강릉시 두산동 19-14번

지에 건축 중인 연탄공장 설립의 부당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한다.

2013년 3월 18일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주)삼보에너지(대표자 정연록)가 강릉시장을 상대로 청구한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3년 2월 1일 청구인에 대하여 건축허가 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청구취지 재결서를 통보하였다.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삼보에너지는 2012년 10월 4일 강릉시장에게 강릉시 두산동 19-14 소재 연탄공장 신축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며, 2012년 10월 12일 2,400명이 서명한 지역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 10. 22 건축허가가 처리되었다.

지역 주민의 반발이 거세지고 확대되어 나가자 강릉시는 착공신고 반려와 함께 건축허가 취소 사전통지와 청문을 거쳐 2013년 1월 29일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통보하였다. 이에 불복한 사업자가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위와 같이 재결하였다. 행정심판 심리 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직권으로도 필요하면 이해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심문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일부 왜곡되었거나 한쪽으로 편향된 것으로 주민들의 환경권을 침해한 대표적인 사례라 아니할 수 없다.

강릉시는 전국에서 유일한 녹색시

범도시로 지정되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환경도시로 탈바꿈해 가고 있다. 연탄공장 입주 부지 바로 옆에는 수십억 원을 들여 강릉 남대천 생태하천 조성 공사가 완공되어 얼마 전에 준공식을 하였다. 환경수도(首都) 강원도, 관광, 생태, 환경도시 강릉시 도시에 대표적인 광해산업인 연탄공장 설립은 말이 되지 않는다. 청정의 도시 도심 안에 연탄공장이 준공되어 가동된다면 주민들과의 마찰로 끊임 없이 민원이 발생할 것이 사료된다. 현행법으로 규제되지 않는다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도와 시행정기관에서 관심을 갖고 도심지역에 연탄공장이 들어설 수 없도록 중지를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13평창비엔날레 강원국제미술관람회에 대하여

제230회 정례회 / 2차 본회의 / 2013. 7. 19(금)



이 숙 자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 비례대표

저는 지난 5일 의회 본회의에서 제

기한 평창 비엔날레의 불법·편법 행정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고 주장하기에 부당한 행정행위를 바로 잡고자 한다.

첫째, 조직위원회 설립지원조례가 비엔날레의 지원근거임에도 여전히 강원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편리하다는 탈법적 발상은 누구의 생각인지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다. 둘째, 서울신문, 경향신문, 연합뉴스, 강원일보, KBS 등 각 언론사마다 '부실 추진, 전문성 부족 우려'를 보도하는데도 도차원에서 사전준비가 되었다고 둘러대고 있다. 그러나 지난 의회 추경예산안 심의 시 준비된 자료가 있느냐는 질문에 담당 국장이 "예산이 없어 아무런 준비된 바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셋째, 지역 예술인들은 강원아트페어나 신사임당미술대전보다 못 한 전시가 왜 이토록 조급하게 이루어졌는지 묻고 있다. 또한 국외작가들조차 섭외시간이 부족해 대부분 국내에 들어와 있는 작가들의 작품, 즉 땀집식 전시기획을 왜 하게 됐는지 궁금해 한다. 넷째, 지역문화계가 예술감독의 지독한 편향성을 문제삼고 있다. 현재 총감독을 맡으신 분이 직접 블로그에 우리 태극기를 일장기로, 성조기로 조잡스럽게 편집하여 모독하는, 강원도의 자존심 독도와 동해를 다케시마와 일본해로 변모시킨 지도를 유포하기도 했다. 과연 이분이 '지구 하모니'와 '평화·인간·환경'을 테마로 한 평창비엔

날레를 이끄는 총감독으로 적합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같은 문제에 대해 첫째, 조례를 어기면서까지 급조하여 변칙적인 비엔날레를 개최한 사유에 대해 분명한 답변이 없을 경우 강원도의 명예실추와 도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무력화한 것으로 판단, 감사청구 등 가장 강력한 대응을 할 것임을 밝힌다. 둘째, 지극히 편향된 가치관을 가진 총감독의 즉각적인 해임을 촉구하며 선부른 선임으로 강원도의 명예를 실추시킨 강원문화재단 이사장의 연대책임을 묻고자 한다. 셋째, 일련의 사태에 대한 강원도지사의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바이다.

DMZ연구의 HUB로서의 대학육성

제230회 정례회 / 2차 본회의 / 2013. 7. 19(금)



조영기 의원

교육위원회 / 양구군 선거구

금년은 세계 유일의 분단 상징물인

디엠제트 설치 60주년을 맞는 매우 뜻 있는 해이다. 그동안 접경지역은 각종 규제로 인해 고통을 받았고 북한 정세에 의해 불안감 확산 및 지역 경제가 침체되었으며 열악한 보건환경 속에 놓여 있다. 강원도에서는 접경지역지원 특별법 격상,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등을 통해 제도적, 정책적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 디엠제트와 강원도의 미래, 대학교의 역할에 대해서 제안드린다. 지난 5월 미국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디엠제트에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미의회 연설을 통해 밝혔으며 범 정부적 검토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강원도에서는 이를 유치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적

극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 그리고 지난해 유보된 디엠제트 일대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과 강원평화지역 지질공원의 국가인증 및 세계인증을 통해 디엠제트 및 접경지역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지질공원을 통한 의료관광의 범조성으로 지역 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다각적인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강원대학교에서는 디엠제트 헬프센터를 통해 디엠제트 연구의 HUB로서 이미 많은 분야에서 디엠제트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정부 및 강원도의 지원이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우리 강원도가 중심이 되어 디엠제

트 BANK 구축을 통해 디엠제트 및 접경지역에 대한 연구를 통합관리하고 산·학·연·관이 협력을 강화하여 디엠제트 연구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강원대학교와 함께 추진해야 한다. 이후 강원대학교에 디엠제트의 특성화를 위한 전문대학원이 유치되도록 강원도에서 지원을 해야 한다. 디엠제트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강원도에서는 디엠제트 및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문에서의 선도적인 역할 수행이 꼭 필요하다. 디엠제트 및 접경지역의 거점은 반드시 강원도가 되어야 한다. 지사님의 탁월하신 정치력, 행정력을 기대하겠다.

DMZ세계평화공원 유치와 관련

제230회 정례회 / 2차 본회의 / 2013. 7. 19(금)



박효동 의원

농림수산위원회 / 고성군 선거구

지난 5년 전 관광객 총격사고로 금강산 육로관광이 중단된 지도 어느덧

5년이 지났다. 최근 새정부 출범과 함께 대북정책의 근간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과 국제공조의 해빙 분위기 조성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여기에 대통령의 방미 중 제안되었던 디엠제트 세계평화공원은 그동안 각종 규제와 접근성 제약으로 소외받던 접경지역이 희망과 미래의 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고 있다. 이에 본 의원은 금강산 관광으로 폐쇄된 접경 동해안 최북단의 지리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민족과 세계적 생태보고인 금강 설악권역의 중심축이자 세계 유일 분단지자체 남북 고성 디엠제트 일원에 디엠제트 세계평화공원이 조성되어야 함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첫째, 고성은 고 정주영 회장

이 소떼를 몰고 방북, 금강산관광을 이끌어낸 남북 간 교류협력과 평화협력의 시발이자 발화점이 되는 곳이다. 두 번째, 원시 자연환경의 디엠제트 내에서도 특히 3대 생태축인 디엠제트, 백두대간, 동해 연안을 모두 보유한 국내 유일의 자연생태보고이다. 셋째, 금강산이라는 세계명산이 있는 한반도 최고의 경관명소이다. 넷째, 평화를 염원하고 세계인이 찾아올 수 있는 평화의 전당이자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최적의 여건을 갖춘 곳이다. 다섯째, 세계평화공원을 고성 디엠제트 일원에 조성함으로써 설악과 디엠제트, 디엠제트와 금강을 잇는 한반도 평화생태의 거점으로 삼겠다는 청사진이 이미 지난 2011년 7월에 접경지

역발전 종합계획에서 발표한 바 있다. 여섯째, 통일경제특구 설악 금강 국제관광지대와 동서 간 국토균형발전을 실현하는 길이다. 이렇듯 세계평화공원 고성 입지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 유지라는 측면과 조성 후 배후 기능 숙박 및 체육시설 등의 확보, 양양국제공항 고속도로 등 기존 교통인프라가 고루 갖춰져야 한다. 그래서 세계인이 공유할 글로벌 지향성인 환경 경관, 기후 여건 등과 함께 접근성도 복합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국가 미래비전을 실현하고 국가 성장동력과 브랜드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고성에 세계평화공원이 입지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여주~원주 전철사업 관련 도차원의 관심에 대해

제230회 정례회 / 2차 본회의 / 2013. 7. 19(금)



김기홍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 원주시 제2선거구

여주~원주 수도권전철을 비롯한 당장 해결가능성 높은 사업의 우선적

선택과 집중 및 사업의 실현성을 높이는 다차원적 해결방안 모색을 통해 도정현안의 순차적 해결을 제고하자는 제언을 드리고자 한다. 지난 10일 원주시민들은 여주~원주 수도권전철 건설을 촉구하는 합동기자회견을 가졌다. 월곡~강릉을 연결하는 동서철도노선 중 Missing Link 구간인 21.9km를 연결하는 본 사업은 중부내륙권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관철되어야 하는 사업이다. 장기적 안목으로 복선전철을 추진하는 것이 맞지만 복선 추진은 KDI 예비타당성 조사 B/C가 0.76으로 나왔고 별도로 실시한 복선 전제 단선철도 추진은 1.03을 넘어 경제성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주~원주 간 철도가 수도권 광역철도

망과 연결되면 평창은 서울 강남 및 경기도 남부지역과 한 시간 내 통행이 가능해진다. 2018년 올림픽을 치르는 평창과 영동, 그리고 강원도는 세계축제의 장이 되지만 우려의 목소리 또한 끊이지 않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숙박시설이다. 여주~원주 간 전철 연결은 이를 가장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줄 수 있다. 경기장과 수도권의 한 시간 내 통행은 관람객이 수도권이나 원주 혹은 그 중간에 위치한 숙박시설을 이용해 당일치기로 경기를 볼 수 있게 해 준다. 이는 올림픽 관람객을 위해 추가 공급예정인 1만 4,000실 규모의 숙박시설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숙박시설을 짓는데 투입할 돈

을 철도에 투입하게 되면 과도한 공급으로 인해 올림픽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운영적자의 우려 또한 해소할 수 있게 해 준다.이 외에도 강원도와 수도권 및 전국으로의 철도 접근성을 높일 수 있고 인천공항에서 KTX 광명역을 거쳐 판교, 광주, 이천, 원주, 횡성, 평창, 강릉으로 연결되는 동서간선철도 기능도 갖게 된다. 강원도에 동서고속철이 갖는 의미와 파급력은 여주~원주 수도권전철 연결이 갖는 그것과 대동소이하며 반드시 관철되어야 하는 사업이다. 지사님께서 다각도의 검토와 연구를 통해 모든 해결 가능성을 여시고 선결 가능한 현안부터 지워가시길 제언드린다.

제9차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개최



▲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도의회 김동일운영위원장)는 7월 25일 강촌리조트에서 제9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지방의회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제9차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회의가 7월 25일 오후 2시 30분 엘리시안 강촌리조트 코랄룸(3층)에서 개최됐다.

올해 들어 여섯 번째로 개최되는 금번 정기회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춘천~속초간 동서고속화 철도 건설, 원주~여주간 철도 건설 등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예산 지속적인 투자 촉구 건의, 독립유공자 묘지이장 지원단가와 유족관리 묘소에 단장지원금 및 독립유공자 묘지안 내관 제작비용에 대한 국비지원 현실

화를 위한 독립유공자 묘지관리제도 개선 촉구 건의, 재정형편이 열악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노후 상수관망 정비를 우선 추진하겠다는 국정과제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노후 상수관 정비를 위한 국비지원 건의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한편,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과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하여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전국 시·도의회 공동 관심사항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지방자치 발전 저해요인의 발굴·개선 등을 목적으로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다음 회의(제10차 정기회) 개최지는 전남에서 개최된다.

접경특위, 이·통장연합회장 및 번영회장 간담회

6개 접경지 접경지역발전협의회 구성



▲ 도의회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방승일)는 6개접경지 이통장연합회장 및 번영회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강원도의회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방승일)는 7월 5일 강원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접경지역 6개 시군 이·통장연합회장 및 번영회장 등 접경지역 주민들과 접경지역의 공통 현안 해결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접경지역 6개 시군 이·통장연합회장 및 번영회장들은 강원도 접경지역 발전 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있어 전적으로 동의를 하

고 앞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공동 성명서를 통해 ▲DMZ 세계평화공원 강원도 유치 ▲춘천~화천~양구~인제~속초~고성 경유 동서고속화철도 조속 착공 ▲고성~강화 동서평화고속도로 건설 ▲접경지역 SOC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정부에 접경지역 지원 전담조직 신설 ▲중앙고속도로 철원 연장 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도의회 민생탐방, 태백에서 지역주민들과 소통



▲ 강원도의회(의장 박상수)의장단과 태백지역 도의원들은 태백에서 민생탐방을 실시했다.

강원도의회(의장 박상수)는 7월 2일 민생체험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에 나섰다.

이번 민생체험에는 박상수의장, 손석암부의장, 김동일운영위원장, 정재웅경제건설위원장, 임남규예산결산특위위원장 등이 관계자들과 함께 태백 황지자유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또한 시장에서 직접 물품을 구매하고 물가와 시장분

위기를 직접 체험한 후 지역 다문화 가정과 실버요양원을 방문해 배드민턴 라켓과 TV 등 위문품을 전달하고 애로사항을 들었다.

박상수 의장은 “따뜻한 이웃사랑 실천운동을 통해 도내에 희망·나눔·사랑의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바란다” 하고 “향후 도내 다양한 계층의 애로사항을 직접 확인하여 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 고 밝혔다.

강원-대구 광역의회 지방분권 실현 협약 체결



강원도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위원장 구자열)와 대구광역시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박성태)는 7.25일 강원도의회 상담실에서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방의회가 부활된 이후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는 심화되는 등 안타까운 실정에 있고, 세계화, 지방화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이제 지방분권은 시대적 요구이자 과제로 대두

됨에 따라 양 시도의회는 지방분권 구현을 위한 정책과제 개발과 대정부·정치권 건의활동에 상호 긴밀히 협력하고 지방분권 관련 국정과제의 조속한 실현을 위한 범 지방적 지방분권 촉구 활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하였다. 또한, 대국민 홍보를 위한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과 지역사회 발전 역량강화 및 지방분권 추진에 필요한 거버넌스 체제 구축 등 양 시도의회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제8대 강원도의회 하반기 개원 1년, 의정성과와 과제



2012년 7월 출범한 제8대 하반기 강원도의회는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의회를 의정목표로 정하고 지난 1년여 기간 동안 활발히 활동하였다.

주요 성과를 보면 의정 지원역량 강화 및 경쟁력이 크게 제고되었고, 의원들의 입법·연구 활동이 강화되었으며, 도정 주요현안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는 한편 집행기관과 현안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현안해결에 앞

장서 왔다. 또한, 민생투어를 실시하여 현장에서의 도민들과의 대화에도 힘을 기울였다.

아울러 일본 토야마현, 러시아연방 연해주,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동카자흐스탄 등 동북아시아 지역 지방의 회와의 교류 등 국제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특히, 눈에 띄는 성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회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입법활동이 매우 활발해졌다는 점과 강원도 발전에 필요한 긴

급현안에 대하여는 집행기관과 함께 적극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 사례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이 유치되자 행정조직 마련을 위한 관련 조례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본회의 개최 전에 기획행정위원회와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를 하고 제2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도정에 힘을 실어준 것은 유례없이 보기 드문 사례라고 하겠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롯

하여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 2018 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송전탑 피해대책특별위원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등 5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안에 대한 대응능력과 전문성을 높였고, 기후변화연구회를 비롯하여 사회작기업연구회, 서민경제연구회, 길 연구회, 다문화가정연구회, 보건의료연구회 등을 구성하여 활발히 활동 중에 있다.

활발한 입법활동 및 우수사례



제8대 하반기 개원이후 다양한 분야의 지역사회 환경변화 및 수요에 부응하고, 상위법률 제·개정에 맞춰 여러 분야에서 활발한 의원입법 활동을 하였으며, 특히 의원 발의 조례는 30건으로 지난 1년간 임시회 7회 정례회 2회 등 총9회의 회의가 열린 것을 보면 1회기당 평균 3.5건의 의원입법 조례가 발의·상정된 것으로 나타나 역대 도의회 중 가장 활발한 입법활동을 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조례 제정의 질적인 면도 향상되어 도민과 공공기관에서의 국어 사용 촉진을 위해 의원 발의로 제정한 「강원도 국어 진흥 조례」는 문화관광체육부가 전국 지자체에 우수사례로 선정하여 홍보한 바 있으며, 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강원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강원도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등은 도민들의 권익과 건강증진을 위해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조례로 다수 제정되었다.

전제기능 강화와 도정진단, 대안제시



도민의 대변자이자 집행부와 함께 지방자치의 한 축을 이루는 도의회는 매년 2~3회에 걸쳐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도정질문을 실시하고 있다. 제8대 하반기 도의회 출범 이후에도 총3회에 걸쳐 27명의 의원이 도정 질문을 하였다. 주요 질문내용을 보면 지방의료원 경영 합리화 방안 및 정상화 대책, 강원도 출자·출연기관의 합리적인 관리방안, 도청 및 교육청의 조직관리, 지방도 등 SOC사업 확충방안, 춘천~속초간 동서 고속화철도, 오색로프웨이 대책, 골프장 문제점, 알

펜시아 대책, 학교폭력 예방대책, 고교 평준화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대책,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도시지역 학생과 농촌지역 학생들의 학력격차 해소방안 등 도민들의 관심이 높은 많은 내용들이 고루 다루어 졌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전년(480건) 대비 16.8%가 증가한 561건을 시정·조치함으로써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사전준비와 꼼꼼한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와 정책개발 및 대안 제시로 생산적인 감사활동을 했다는 평을 받았다.

연구와 연찬활동으로 전문성 강화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정발전과 주요시책 및 지역개발 등 특정분야에 관하여 의원들이 자율적인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의원연구회」가 제8대 도의회 들어 현재까지 6개가 구성되어 활발히 활동 중에 있다.

「기후변화·사회적기업·서민경제·길·다문화가정·보건의료 연구회」는 현장 견학 또는 간담회를 실시하여 연구주제에 대한 체감도를 높였으며, 체계적인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전문가 초청 강연, 세미나 개최를 통해 정책 발전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의 시간을 가지는 등 관련분야에서 활발한 연구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정책적인 역량 강화를 위해 23명의 의정자문단을 구성하여 상임위원 연찬회 개최시 의정자문위원을 초청하여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전문가 자문 등의 시간을 가지고, 특강,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 분야별로 의원들의 전문적인 식견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강원도 발전을 위하여 수시로 각종 정책발굴과 대안 제시를 할 수 있도록 상시 소통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민생탐방을 통한 생생한 도민의 목소리 의정활동에 반영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가 보내 다양한 계층의 애로사항을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고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반기 원구성 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강화했다. 2012년 8월 양구 해안면 일대에서 멜론 과수원 주변 제조작업 후 마을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농산물 최저단가 제도도입, 명품화 사업 지원 등 현장에서의 지역현안 및 애로사항을 듣고 지역발전 방안 등에 의견을 교환했고, 2013. 2월 화천 전통시장을 방문해 물가체험 및 화천시장 조합장 및 상인들과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등

다양한 계층의 민생탐방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었다. 도의회는 앞으로도 봉사활동, 취약계층과의 간담 등을 통해 도민들의 그늘진 곳을 밝히는 「섬기는 의회」, 도민들의 생활현장을 찾아가 생생한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발로 뛰는 「일하는 의회」, 농가체험, 다문화가정 방문 등 다양한 소통을 통해 「가까운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회기에 국한된 관행적 의정활동을 탈피해 도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 다양한 계층의 애로사항을 직접 확인하고 서민중심의 의정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도민 행복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지난해 7월, 힘차게 출범한 제8대 하반기 강원도의회가 벌써 개원 1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의회를 믿고 성원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제8대 하반기 강원도의회 출범 이후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유례없이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지역경제는 더욱 어려운 형편이며 우리 도의회에서도 해결해야 할 많은 현안들이 시급을 다투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도가 그동안 중점적으로 관리해 오던 3대 현안 중 하나인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은 지난해 9월 성공적으로 지정을 받았고 올해 7월 개청을 했습니다. 동서고속화철도와 설악산 오색로프웨이 사업은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야 가지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강원도의회에서는 섬기는·일하는·가까운 의회를 지향하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강원도 발전을 위한 의정에 매진했으며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도민과 직결되는 150여건의 안건을 처리하였고, 다수의 조례를 의원발의로 제정 하였습니다.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해 10여 건의 건의·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도민의 여망을 결집하여 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도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집행기관의 사업들을 세밀히 살피는 한편 「각종연구회」, 「찾아가는 도의회」 등을 운영 하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도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도민들께서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와 같은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정부 정책에 밀려 강원 북부 발전과 SOC는 진척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 중심의 재정운영은 지방자치를 크게 제약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앞으로 집행부와 지방의회가 힘을 합쳐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남은 하반기 1년은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다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각종 불합리한 정책과 제도들은 개선하여 도민 행복중심의 의정활동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 나갈 것입니다. 자치입법을 강화하고 의원 연구활동을 활성화 하는 등 민생·현장중심의 의회, 역동적인 의회로 거듭 나겠습니다. 도정과 교육행정 현안에 대해 각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내실있게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주어진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고 사용되도록 정성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도민이 소망하고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깊게 생각하고 그 뜻이 도정과 교육행정에 반영되도록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의 의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도민의 행복을 위해 거듭나고자 노력하는 강원도의회를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과 사랑을 보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섬기는 의회, 일하는 의회, 가까운 의회”, 우리 강원도의회는 도민의 행복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강원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동일)는 제230회 정례회 기간중 7월 5일 회의를 열어 제23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본회의 초청연설 협의의 건, 제23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을 원안의결했다. 특히 오는 9월 임시회에서는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5조의2 규정에 의거 도의회 개원 57주년을 기념하여 국·내외 저명인사의 본회의 초청연설이 있을 예정이다. 또한 7월 8일 회의를 열어 의회사무처 소관 201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았다.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동일)는 7월 8일 의회사무처소관 201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의결하고,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다.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박영승)는 제230회 정례회 기간중 8건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특히 「강원도 공무원 일·숙직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타시도의 당직비 인상추이를 보면서 추후 심사하기로 하고 계류했다. 또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시, 감사관실 소관으로 향후 미시령터널 관련 감사 등 특정감사 내용이 업무보고에 제외되지 않도록 주문했고, 강원도개발공사에 알펜시아 정상화를 위해 에스테이트 분양외 콘도나 골프 회원권 등 타분야 분양에도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박영승)는 7월 9~12일 강원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7건,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을 심사 의결했다.



▲ 사회문화위원회(위원장 남경문)는 7월 8~11일 조례안 1건, 201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결하고,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다.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사회문화위원회(위원장 남경문)는 제230회 정례회 기간중 원태경·김금분위원이 공동발의한 「강원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 단절 현상을 막고 이들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여 청소년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고, 2013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 해당부서별로 주민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다양한 SNS를 이용한 홍보방안, 지역특성을 고려한 특색있는 바우처 관련 사업 추진, 강원도 의료원이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할 것 등을 주문했다.



▲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박효동)는 7월 8~11일 건의안 1건, 조례안 1건 등을 심사 의결했다.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박효동)는 제230회 정례회 기간중 권혁열위원이 발의한 「강원도 동해항 북극항로 모항 지정 촉구 건의안」, 「강원도 가축위생시험소 검사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또한 2013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 새농어촌 건설운동 대상마을 선정에 지속적인 관심과 저소득 가구 생활안정 연탄가격 인상분 지원사업의 정확한 수혜자 파악, 실질적 지원요구, 도내 친환경농산물이 국제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향후 평창동계올림픽에 도내 농산물이 세계적으로 홍보 되도록 주문했다.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정재웅)는 제230회 정례회 기간중 「강원도 한옥지원 조례안」은 준공후 3년 이내에 한옥을 매도한 경우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으나 무분별한 매매행위 방지를 위해 기간을 5년으로 하는 등 수정 가결했고 고진국위원이 발의한 「강원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원안 가결했다. 또한 2013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 동계올림픽 개최 3개 시·군 외 타지역 동반성장 및 균형발전을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등 주요 SOC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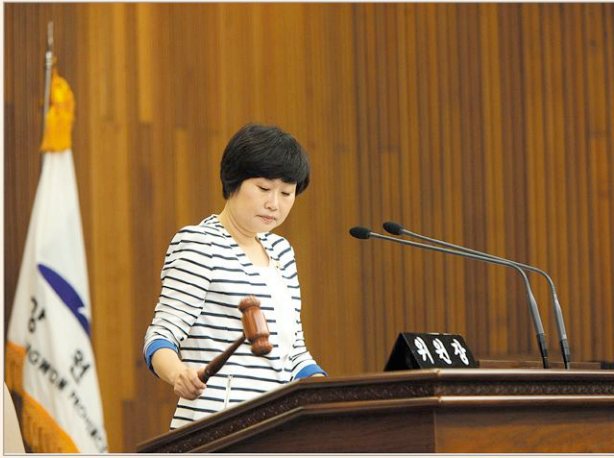
▲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정재웅)는 7월 8일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 개청식에 참석하고, 7월 10~12일 2건의 조례안을 심사 의결했다.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유창욱)는 제230회 정례회 기간중 7월 8~12일 이문희·조영기의원이 공동 발의한 「강원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은 “다문화가정 학생”의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호를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고 2건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했다. 또한 교육청소관 2013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 100만화소 이상 등 고화질 CCTV설치 도 교육청 일괄 입찰 등 소신있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2012회계연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이승복장학기금, 강원교육장학기금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



▲ 교육위원회(위원장 유창욱)는 7월 8~12일 조례안 3건, 결산승인 4건 등을 심사 의결하고, 11일 강원학생교육원을 현지 방문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남규)는 7월 16일 임남규위원장과 김미영부위원장을 선임하고, 16~17일 201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및 강원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 의결했다.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원도의회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결산 및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2014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기획행정·사회문화·농림수산·경제건설·교육위원회 등 각 상임위원회별로 3명씩 선임하여 15명으로 구성된 예결특위는 7월 16일 회의를 열고 위원장 선임의 건,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여 예결특위 위원장에는 임남규의원, 부위원장에는 김미영의원이 선임되었다. 또한 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 201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 17일에는 2012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

제8대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활동기간 : 2013. 7. 5 ~ 2014. 6. 30)



위원장
임남규
(새누리 / 태백1)



부위원장
김미영
(민주 / 원주1)



이숙자
(새누리 / 비례)



조영기
(새누리 / 양구)



손석암
(민주 / 태백2)



이문희
(교육 / 교육2)



김양호
(무소속 / 삼척1)



김동일
(새누리 / 철원1)



신철수
(교육 / 교육4)



한금석
(민주 / 철원2)



남정문
(새누리 / 정선2)



방승일
(새누리 / 화천)



이학년
(민주 / 비례)



김기남
(새누리 / 홍천2)

사진으로 보는 의정 이모저모

의장단 태백지역 민생체험



제230회 의정대표협의회의



강원도의회 접경지역특위 이통장협의회장.변영회장 간담회



제19회 강원도민의 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개청식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119종합상황실 방문



DMZ세계평화공원 유치 결의대회



강원농축산물 직거래 큰장터



강원학사생 강원도의회 방문



제9차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의 원 동 정



△박상수 의장 = 7월 2일 정선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제18회 강원여성대회에 참석, 7월 26일 삼척 이사부광장에서 열린 2013 삼척 이사부 독도 축제에 참석하였다.



△유창욱 교육위원장 = 7월 8일 원주 만대초교에서 강원초등교육여성행정협의회 하계연수회에 참석, 7월 10일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육근병 전시회에 참석하였다.



△김기홍 도의원 = 7월 8일 춘천베어스관광호텔에서 제19회 강원도민의날 경축 한마당 대축제 행사에 참석, 7월 24일 아모르컨벤션에서 열린 원주시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하였다.



△김시성 부의장 = 7월 9일 동해안경제자유구역청에서 열린 동해안자유구역청 개청식에 참석, 7월 19일 속초시 노학동 노리경로당에서 열린 노리경로당 입주식 행사에 참석하였다.



△임남규 도의회 예산결산특위위원장 = 7월 2일 정선종합경기장에서 제18회 강원여성대회에 참석, 7월 8일 춘천베어스관광호텔에서 제19회 강원도민의날 경축 한마당 대축제 행사에 참석하였다.



△김미영 도의원 = 7월 27일 알펜시아 뮤직텐트에서 열린 제10회 대관령 국제음악제에 참석, 7월 5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된 제230회 정례회 본회의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였다.



△손석암 부의장 = 7월 20일 대관령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열린 제1회 강원국제미술전람회 개최식에 참석, 7월 27일 태백 연무정에서 열린 제9회 태백산기 전국 남녀 궁도대회 행사에 참석하였다.



△오세봉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위위원장 = 7월 18일 강릉시청에서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강릉시민 대토론회 참석, 7월 20일 강릉 강남축구공원 금강대기 전국 중학교 축구대회 개막식에 참석하였다.



△윤병길 도의원 = 7월 2일 정선종합경기장에서 제18회 강원여성대회에 참석, 7월 8일 춘천베어스관광호텔에서 제19회 강원도민의날 경축 한마당 대축제 행사에 참석하였다.



△김동일 운영위원장 = 7월 13일 철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안전행정부와의 배드민턴 친선교류대회에 참석, 7월 25일 강촌리조트에서 열린 제9차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에 참석하였다.



△방승일 접경지역발전특위위원장 = 7월 6일 사내종합문화센터에서 2013 상반기 사내 어린이영어 아카데미 종강식에 참석, 7월 26일 봉어섬에서 열린 레저스포츠 페스티벌 개최식에 참석하였다.



△김양수 도의원 = 7월 8일 춘천베어스관광호텔에서 제19회 강원도민의날 경축 한마당 대축제 행사에 참석, 7월 5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된 제230회 본회의 및 기획행정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였다.



△곽영승 기획행정위원장 = 7월 8일 춘천베어스관광호텔에서 제19회 강원도민의날 경축 한마당 대축제 행사에 참석, 7월 15일 봉평중·고등학교에서 열린 봉평중학교 배드민턴부 창단식에 참석하였다.



△함중국 송전탑피해대책특위위원장 = 7월 2일 횡성소방서에서 횡성소방서장 취임식에 참석, 7월 8일 춘천베어스관광호텔에서 열린 제19회 강원도민의날 경축 한마당 대축제 행사에 참석하였다.



△김근분 도의원 = 7월 3일 도청회의실에서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참석, 7월 17일 춘천 효자2동 일대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 현황을 듣고 주변 가정들을 대상으로 1차 봉사활동에 참여하였다.



△남경문 사회문화위원장 = 7월 9일 강릉 라이카샌드파인리조트에서 열린 제22회 생활개선 강원도대회에 참석, 7월 13일 강릉 청소년 해양수련원에서 열린 제6회 강릉바다축제에 참석하였다.



△구자열 지방분권특위위원장 = 7월 9일 원주교육문화관에서 제5회 국제전통예술대전 전시회에 참석, 7월 25일 강원도의회에서 강원도의회-대구시의회 간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협약식에 참석하였다.



△곽도영 도의원 = 7월 18일 원주 로타리클럽회의실에서 열린 로타리클럽 주회에 참석, 7월 19일 원주 본산동주민센터에서 열린 본산동 바르게살기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였다.



△박호동 농림수산위원장 = 7월 3일 고성군 여성회관에서 고성군 로타리클럽회장 취임식에 참석, 7월 17일 고성군 여성소대에서 열린 향토예비군 고성군 여성소대 창설1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였다.



△고춘석 도의원 = 7월 8일 춘천베어스호텔에서 제19회 강원도민의날 한마당 대축제 행사에 참석, 7월 12일 흥천읍사무소에서 민주평통 흥천군협의회 제16기 출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참석하였다.



△김성근 도의원 = 7월 8일 춘천베어스관광호텔에서 열린 제19회 강원도민의날 경축 한마당 대축제 행사에 참석, 7월 5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된 제230회 정례회 본회의에 참석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였다.



△정재웅 경제건설위원장 = 7월 9일 동해안경제자유구역청에서 동해안자유구역청 개청식에 참석, 7월 29일 송암운동장에서 제7회 금강배리틀K리그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에 참석하였다.



△권석주 도의원 = 7월 24일 영월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주평통 정기회의에 참석, 7월 30일 운학1리 마을회관에서 열린 2013 함께하는 우리농촌현장 포럼에 참석하였다.



△김양호 도의원 = 6월 29일 도계초등학교에서 열린 제1회 도계노인 한마당 축제에 참석, 7월 8일 춘천베어스관광호텔에서 제19회 강원도민의날 경축 한마당 대축제 행사에 참석하였다.



△**최재규 도의원** = 7월 6일 경포대 상영정에서 열린 2013 상영계 결사보고에 참석, 7월 19일 원주 문막읍에서 열린 외국인주민센터건립 기공식에 참석하였다.



△**한금석 도의원** = 7월 12일 철원 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철원군 이장협의회 한마음대회에 참석, 7월 23일 대한 노인회 사무실에서 열린 2013 노인지도자 연찬회 행사에 참석하였다.



△**김세영 도의원** = 7월 5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된 제230회 정례회 본회의 및 교육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 7월 11일 강원도 학생교육원을 현지시찰하였다.



△**이학년 도의원** = 6월 29일 춘천 막국수·닭갈비 축제 장내 전시장에서 2013 아름다운 의암호 사진공모전 시상식에, 7월 2일 춘천 근화동 일대에서 라이온스 사랑의 쌀나눠주기 봉사활동에 참석하였다.



△**이영덕 도의원** = 7월 20일 대관령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열린 제1회 강원국제미술전람회 개회식에 참석, 7월 27일 평창야구장에서 열린 2013 야구클럽리그제 강원도 예선 개막식에 참석하였다.



△**김현 교육의원** = 7월 5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된 제230회 정례회 본회의 및 교육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 7월 11일 강원도 학생교육원을 현지시찰하였다.



△**원태경 도의원** = 7월 8일 춘천베어스관광호텔에서 제19회 강원도민의날 경축 한마당 대축제 행사에, 7월 25일 강원도의회에서 강원도의회-대구시의회 간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협약식에 참석하였다.



△**이숙자 도의원** = 7월 20일 강릉 강남축구공원에서 열린 금강대기 개막전에 참석, 7월 24일 구정면 조순생가 뒤뜰에서 열린 2013 강릉학산 오뚝떼기 감매기 공연에 참석하였다.



△**신철수 교육의원** = 7월 5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된 제230회 정례회 본회의 및 교육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 7월 11일 강원도 학생교육원을 현지시찰하였다.



△**남만진 도의원** = 7월 5일 강원도보훈회관에서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제10대 강원도지부장 이취임식에 참석, 7월 6일 춘천막국수·닭갈비축제장에서 열린 춘1000인 음악회에 참석하였다.



△**고진국 도의원** = 7월 2일 영월사회복지관에서 영월군 사회복지관 개관 1주년 기념식에 참석, 7월 6일 영월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제14회 강원도지사기 국민생활축구대회에 참석하였다.



△**최돈국 교육의원** = 7월 5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된 제230회 정례회 본회의 및 교육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 7월 11일 강원도 학생교육원을 현지시찰하였다.



△**이관형 도의원** = 7월 4일 황성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황성여성대회에 참석, 7월 22일 황성읍사무소 회의실에서 열린 2014황성군 예산편성 황성읍 지역인사 초청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김기남 도의원** = 7월 5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된 제230회 정례회 본회의 및 경제건설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였다.



△**정을권 도의원** = 7월 8일 춘천베어스관광호텔에서 제19회 강원도민의날 경축 한마당 대축제 행사에 참석, 7월 5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된 제230회 정례회 본회의 및 교육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였다.



△**권혁열 도의원** = 7월 3일 김동명 문화관에서 열린 김동명 문화관 개관식에 참석, 7월 18일 강릉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강릉시민 대토론회에 참석하였다.



△**김원오 도의원** = 7월 9일 동해안경제자유구역청에서 열린 동해안자유구역청 개정식에 참석, 7월 5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된 제230회 정례회 본회의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였다.



△**이문희 도의원** = 7월 3일 원주중학교에서 열린 원주 지역 중학교 교장협의회장과 교육현안 간담회에 참석, 7월 4일 원주시체육회 회의실에서 열린 원주시 생활체육회 이사회에 참석하였다.



△**김동자 도의원** = 7월 4일 강릉 경포대일원에서 열린 현대호텔 기공식에 참석, 7월 15일 동해관에서 열린 적십자발전위원회에 참석하였다.



△**김용주 도의원** = 7월 19일 구 캠페이지에서 열린 강원농축산물 직거래 큰장터 행사에 참석, 7월 29일 송암운동장에서 열린 제7회 금강배리틀K리그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에 참석하였다.



△**오원일 도의원** = 7월 8일 춘천베어스관광호텔에서 제19회 강원도민의날 경축 한마당 대축제 행사에 참석, 7월 9일 동해안경제자유구역청에서 열린 동해안자유구역청 개청식에 참석하였다.



△**홍건표 도의원** = 7월 4일 원주 주교관에서 열린 김지석주교님 주최 오찬행사에 참석, 7월 25일 북평면 황골계곡에서 열린 정선군 행정동우회 야유회에 참석하였다.



△**조영기 교육의원** = 7월 4일 양구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빛이 흐르는 걷기 좋은 길 건강걷기대회에 참석, 7월 9일 강릉 라카이센드파인 리조트에서 열린 제22회 생활개선회 강원도대회에 참석하였다.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